



특집연재 33

번역, 정리: 포토뉴스 발행인 박영근  
참고자료: JAPAN PHOTO

뜰에 박힌 사진, 이제는 안녕!

# 개성적인 겨울풍경을 내것으로!



촬영시기 : 1월 상순 오후 2시 30분(사진위)  
맑은 겨울오후 설원을 걷고 있었다. 약간 높은곳에서 발아래 설원을 보니 여우의 발자국이 눈에 뜨였다. 나무들은 겨울의 긴 그림자를 설원에 던지고 풍경에 입체감을 더해 주었다. 길게 뻗은 여우의 발자국과 나무들의 푸른 그림자를 BALANCE 좋게 FLAMING 하여 이 설원을 걷고 있던 여우를 상상하면서 촬영하였다. 이때 나의 그림자가 화면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큰나무의 그림자와 겹치는 위치에서 노렸다.  
PENTAX 645, SMC120mmF4 PL, 조리개 F32 조리개 우선자동 (+2/3EV보정) FUJICHROME RVP GITZO-TRIPOD

촬영시기 : 1월 상순 오후 4시(사진우)  
해가 서편으로 기울었기에 눈덮인 산길을 종종걸음으로 걷고 있을 때 재미있는 모양의 작은 나무를 발견했다. 더욱이 석양을 받은 마른풀은 주황색으로 빛나고 그 길다란 그림자는 설원에 푸른 무늬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조형미와 색채미를 동시에 노리기 위해 망원렌즈로 마음에 드는 곳을 찍어보았다. 순광의 풍경이었으나 그림자를 살림으로서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었다. 색채농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약간 +보정하는데 그쳤다.  
PENTAX 645, SMC200mmF4 PL, 조리개 F22 조리개 우선자동 (+1/3EV보정) FUJICHROME RVP GITZO-TRIPOD

## SCENE 4 겨울경치와 색채

산악, 계류, 그리고 호수의 겨울경치에 대해서 노출과 FLAMING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어느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겨울경치속에 숨어있는 색채인 것이다. 겨울에 친근감을 갖고 그 풍경에 접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색채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 색채를 작자의 의도에 따라 FILM상에 표현하기 위하여서 노출과 FLAMING을 살아야 할것이다. 즉 색채의 농담은 노출로 CONTROL하며 그 BALANCE는 FLAMING으로 꾸며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일견 색채에 궁핍하다고 생각되는 겨울일지라도 노출과 FLAMING을 구사하여 색채를 민감하게 표현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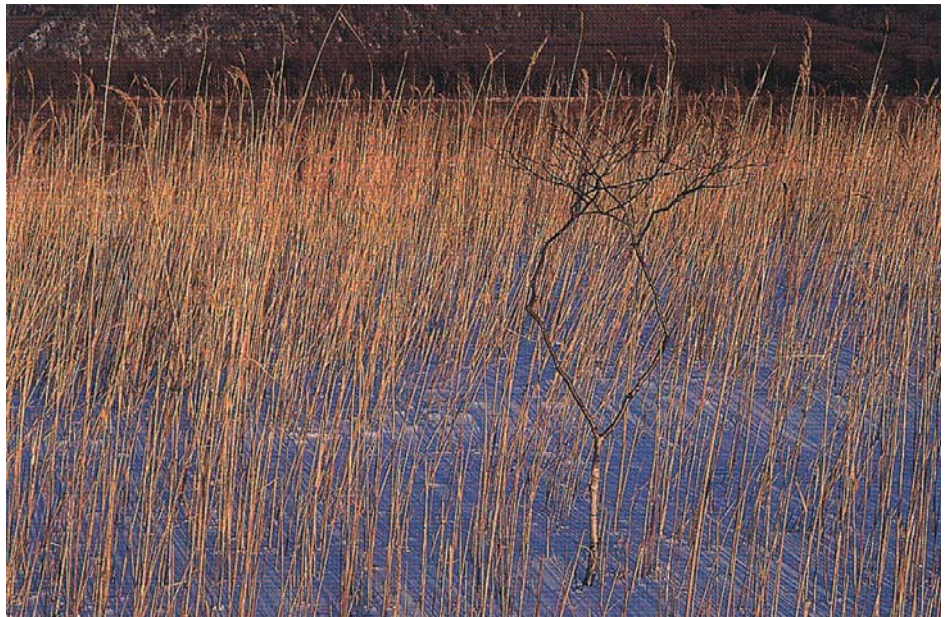
### 4

빛, 색채, 노출, FLAMING의 결정법

## REVERSAL FILM

미리 일러두기  
눈과 얼음으로 폐쇄되는 겨울은 은세계라던가 무채색의 세계라고 표현되나 그것들은 겨울의 표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의 겨울 경치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가지 표정을 나타낸다. 아침해를 받아 붉은색으로 빛나는 관설(冠雪)의 산정, 눈위의 나무들의 푸른 그림자, 석양의 햇빛에 빛나는 ORANGE색의 마른 풀, 그리고 흐린날의 빛이 만들어내는 백과 흑의 MONO-TONE의 세계.....  
겨울은 색채를 중요시하고 싶은 계절이다.

겨울의 자연 풍경이라하면 무채색의 IMAGE가 강하다. 이것도 매력적인 세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서의 역시 단조롭다. 빛의 선택방법과 CONTROL 효과적인 FLAMING에 의하여 색채 풍부한 화면을 만들기가 가능하다. 본 특집에서는 독자(獨自)적인 겨울 풍경을 찍는 비결을 각 환경에 따라 설명한다. (편집부)



가을 만한 곳! 떠나자! 촬영지

연재 2

# 지리산

제4경 벽소명월  
「어두운 밤, 숲 뒤의 봉우리 위에 만월이 떠오르면 그 극한의 달빛이 천지에 부스러지는 찬란한 고요는 벽소명(碧宵嶺)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어느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심산유곡 고사목과 밀림속에서 허공에 걸린 달을 쳐다보면 여기가 바로 선경이 아닌가 싶다.  
제5경 연하선경  
고색 창연하게 이끼 낀 기암괴석 사이에 향기 높은 기화요초(琪花搖草)가 철따라 피어나는 선경으로 위에는 자연고사목 지대가 펼쳐져 있고 아래로는 수백 년이 지나도 푸르름을 자랑

하는 원시림이 가득 하다.  
제6경 불일현폭  
금강산을 방불케 하는 청학봉(淸鶴峰)과 백학봉(白鶴峰) 사이의 험준한 골짜기속의 깊은 낭떠러지 폭포로 오색 무지개가 걸리고 백옥같은 물방울이 서린다.  
6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장쾌한 폭포 소리가 온몸을 파고드는 냉기는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긴장감을 느낀다.  
제7경 피아골단풍

구례 읍내를 거쳐 하동쪽으로 난 길을 달리는 기분은 어느 때고 상쾌하기 이를 데 없다. 섬진강의 투명한 물결이 시샘하듯 함께 달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읍내에서 출발해 10여분을 달리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계인 외곡리에 이르면 소담스런 소나무 숲이 보인다. 이곳 역시 여름철이면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피아골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계곡물이 섬진강에 다르기 직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구불구불 산길을 헤치며 피아골로 향하는 도중에 만나는 풍경도 장관이다. 옥수(玉水)처럼 깨끗한 연곡천 물결이 돌맹이에 부대끼며 토해내는 흰 포말이 언뜻언뜻 스쳐가고, 웅기종기 머리를 맞댄 시골집들의 다정스런 모습이 아련히 옛 추억의 갈피를 더듬게 만드는 길. 늦여름부터는 산을 뒤덮는 밤꽃의 비릿한

내음이 오히려 싱그럽게 코끝을 스치고, 길게 이어진 논다랑이는 비 오는 소리가 들려올 듯 가까이 잡힌다.  
연곡사를 지나 4km쯤 더 오르면 울창한 밀림이 보인다. 지리산 최대의 활엽수림 지대인 이곳 피아골은 4계절이 다 절경으로 어느 때나 밀려드는 인파로 성시를 이룬다. 봄이면 진달래, 여름이면 짙은 녹음, 겨울이면 설경까지 아름다운 피아골, 그러나 가을의 단풍은 천하제일의 경치로 손꼽힐만큼 아름답다.  
10월 하순경에 절정을 이루는 피아골 단풍은 현란한 '색(色)의 축제'다. 사람의 손으로는 벗어낼 수 없을 온갖 색상으로 채색한 나뭇잎들, 그들이 한데 모여 발산하는 매혹적인 자태는 능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산(山)도 붉게 타고, 물(水)도 붉게 물들고, 그 가운데 선 사람(人)도 붉게 물든다는 삼홍(三紅)의 명소, 피아골의 단풍은 가을 지리산의 백미(白眉)다.  
제8경 세석철쭉  
봄이면 난만(爛漫)히 피어나는 철쭉으로 운봉꽃사대를 이루는 세석평전은 30리가 넘는 드넓은 평원으로 남녘 최대의 고원이다. 이를 그대로 잔돌(細石)이 많고, 시원한 샘물도 팔팔 쏟아지는 세석평전에는 수십만 그루의 철쭉이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한바탕 흐트러진 잔치가 벌어진다. 피땀처럼 선연하거나, 처녀의 속살처럼 투명한 분홍빛의 철쭉이 바다처럼 드넓게 펼쳐지는 절정기에는 산악인들의 물결로 세석평전

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시인 김석(金洙)은 "세석 계곡 가득히 피어있는 철쭉꽃, 그 사이사이로 울고 있는 삵쪽새 소리, 훈풍이 꽃 사이로 지날 때마다 꽃들의 환상적이고 화사한 흔들림, 그것은 남녘 나라 눈매 고운 처녀들의 완숙한 꿈의 잔치"라고 이곳의 철쭉을 노래하기도 했다. 지리산 철쭉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처절하도록 서럽게 그러나 꺾이지 않는 의지의 화신(化身)으로 등장하는 진달래와 더불어, 봄의 지리산을 단장하는 명물로 못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9경 철선계곡  
천왕봉에 뿌리를 둔 급류가 절벽을 뚫고 깊은 계곡을 이루는 우리나라 3대계곡 중의 하나로 七仙洞에서부터 계곡은 오를수록 선경으로 장관을 이룬다.  
제10경 섬진청류  
산이 높으면 물도 맑다. 지리산을 남서로 감돌아 남해에 이르는 섬진강(蟾津江)은 그 물이 맑고 푸르러 한 쪽의 파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고 강 양쪽에 펼쳐진 백사장도 하얀 명주천을 깔 듯 아름답다. 급류를 타고 오르내리며 어찌를 낚는 어부의 모습도 아름답기만 하다.

